



恩津宋氏宗報

홈페이지 : ejsong.co.kr E-mail : ej0835@hanmail.net

종보는 모든 종원들의
정성과 동참으로 만들어집니다.

연회비 납부 계좌

하나은행 : 609-233549-00205
농협 : 351-1084-0817-03
예금주 : 은진송씨 쌍청당 공파 종중

■ 發行人/宋錫根 ■ 編輯人/宋在億 ■ 印刷人/宋富鎬 ■ 發行處/恩津宋氏大宗會 大田廣域市 大德區 同春堂路 161 ■ 電話 (042)256-0835 / 電送 (042)633-0531

〈파유사회의〉

쌍청회관 건물인도소송 원안대로 승인 종규개정소위원 정수변경 및 개정위원 선출

2023년도 제2차 파유사회의가 6월 9일(금) 10시 30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61 원일빌딩(대중회관 건물)에서 재적 파유사 46명중 총 42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2023.02.23.

쌍 청 회 관 에
서 개최된 제1
차 파유사회의
에서는 회의형
“ㄷ”자 자리배
치로 파유사 상
호간 대면하며
회의를 진행하
였으나 이번 회
의는 회의공간
형편에 맞게 자
리배치를 교실
형으로 배치하
여 진행하였다.

송석근 대종
회장의 인사말
씀에 이어 신임

총무유사 송인집의 인사, 성원보고가 있었고, 송성호 파유사회의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회의가 시작되었으며, 송성호 의장이 파유사회의를 개최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였으며, 이어 파유사회 회의록 서명유사로 송창공파 송인봉, 잠부공파 송병무를 지명하였다.

이어서 신임 파유사로 제월당문희공파 송인승씨의 후임으로 송원섭 파유사가, 무주공파 송창현씨의 후임으로 송왕호 파유사가 선임되어 “파유사로서 종사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며, 여러 파유사님의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린다”는 인사가 있었다.

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송성호 의장

의 진행으로 계속된 회의는 제1호 안건인 쌍청회관 건물인도소송 추인(안) 승인의 건(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1 가합 106665 건물 인도)을 상정한 후, 승인한 장재유사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찬성하는 파유사 1명, 반대하는 파유사 1명의 발언을 듣고, 그간 지루하게 이어져온 쌍청회관 건물인도소송에 대해 “추인결의”를 하여 참석파유사들의 찬반 표결 결과 찬성 38명, 반대 4명으로 통과 되었다.

이어서 있는 기
타 토의사항에

는 종규개정을 위한 종규개정위원수에 대한 토의 결과 현재 6명인 위원수를 목사공종중 3명, 정랑공종중 3명, 사직공종중 1명 총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의되었으며, 선임된 위원으로는 목사공종중(자산공파 송이영, 사우당효정공파 송진팔, 쌍계당공파 송철기 파유사), 정랑공종중(부원당공파 송재강, 삼기당공파 송재원, 우암문정공파 송기호 파유사), 사직공종중(장사랑공파 송필호 파유사) 총 7명을 선임하여 앞으로 종중발전방향에 맞는 현실적인 종규로 개정하기로 하였고, 의장의 폐회선언으로 회의를 전부 마쳤다.

〈상무유사회의〉

쌍청회관 인도소송 추인(안) 심의 기타 은송발전에 관한 일반현황 논의

대종회 종규 제11조에 의거하여 2023년 5월 30일(화) 10시에 대중회 장소에서 정원 8명중 7명(송덕영, 송석근, 송유영, 송구영, 송계용, 송만호, 송광현)이 참석하여 제2차 상무유사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안건은 쌍청회관 인도소송[〈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1 가합 106665 호 건물 인도〉]

추인의 건을 2023년 제2차 파유사회의에 부의 가부를 심의하는 건과 기타 종중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다.

의장(대종회장)의 인사말에 이어서 장재유사 송인한이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고 상무유사의 심의가 있었다.

추파공파 송계용, 송창공파 송구영,

잠부공파 송만호 상무유사 등의 각각 심의발언에 이어 삼가공파 송유영 상무유사가 본 소송 1차 조정판결을 하였던 과정을 설명하고, 이미 진행중인

소송으로 본 건을 파유사회의에 부의하여 그 결과를 소송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이 가하다는 의견에 참석인원 전원의 동의하에 의장(대종

회장)이 쌍청회관 인도소송(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1 가합 106665호 건물인도) 추인의 건을 2023년 제2차 파유사회의 부의 안전으로 상정할 것을 심의하였음을 말하고, 기타 은송발전에 관한 일반현황을 논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 상무유사회의

은진송씨의 증시조로 추앙받는 쌍청당 송유 선조님의 어머니로 고려말 남편인 진사공(克己)께서 일찍 돌아가시자 당시의 풍습대로 친정 부모님이 개가시키려 하였으나, 4살짜리 아드님이신 쌍청당을 업고 호랑이의 인도를 받으며 3週 동안 밤낮을 걸어 시가인 회덕으로 내려와 지금의 중리동에 정착하여 오늘날의 은진송씨가 대전에서 번창하게 된 분입니다. 류조비는 판산김씨의 허씨부인과 남원양씨의 이씨부인과 함께 고려말의 세 열부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송인무 제월당 공사원 인터뷰

지었을 때부터는 거의 60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민가에서 단청이 되어있는 유일한 건물입니다.

◆제월당 문희공파 송인무 공사원 인터뷰 내용

1. 제월당家は 어떤 집안인가요?

조선시대에 송시열, 송준길 선생과 함께 삼송으로 일컬었으며 한 고을에 살면서 학통을 이어온 증시조 문희공 송규렴의 일가이다. 대쪽 같은 절개와 충효를 근본으로 삼아 귀감이 되었다. 제월당은 맑은 하늘의 달빛 같은 홍금을 추구하는 유학자라는 의미이다.

2. 옥오재 송상기의 업적은 무엇인가?

은진송씨중 유일한 대제학이다. 특히 외교문서 작성에 능하여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가서 정문(正文)을 지어 청나라 황제를 놀라게 했다. 동문선을 편찬했고 옥오재집을 남겼다. 1722년 강진에 유배되어 집필과 독서로 여생을 마감했다.

TJB대전방송 <UHD 영상에세이> ‘회덕 쌍청당’, ‘제월당’ 편 인터뷰

TJB대전방송 TV프로그램 UHD영상에세이에서는 대전의 유서깊은 문화재의 의미를 살리고 아름다운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우리 은진송씨 대

종회 쌍청당(대전시 유형문화재 제2호)과 제월당(대전시 유형문화재 제9호)의 영상을 제작하여 TJB대전방송으로 홍보한다는 요청이 있어 2023년 5월 26일(금) 9시 동춘당 고택에서 송석근 대종회장과 송인무 제월당문희공파 공사원이 참석하여 인터뷰하였다.



▲ 송석근 대종회장 인터뷰

◆송석근 대종회장 인터뷰 내용

1. 고흥류씨 부인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암 송시열 선생 탄생 416주년 춘향제

우암 송시열(1607~1689) 선생의 문종인 은진송씨송자각하중친회(회장 : 송영문) 주관으로 5. 9(화)11:00에 화양서원 사당에서 후손 및 후학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는 春享祀를 봉행하였다.

코로나19로 모든 행사가 취소, 축소되었다가 2023년부터 코로나 해제됨과 동시에 많은 후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초헌관 : 전재환(문충사 이사장)
- 아헌관 : 송석근(은진송씨대중회장)
- 종헌관 : 최영덕(문충사 원장)등 여러분이 제례를 엄숙히 봉행하였다.

우암문정공파(尤菴文正公派)의 파조인 송시열(宋時烈)은 1607년(선조40) 11월 12일에 경현공(景獻公) 갑조(甲祚)와 정정부인 선산 광씨 사이에 3남으로 충북 옥천군 이원면 구룡촌 외가 마을에서 태어났다. 자가 영보(英甫)이며 호가 우암(尤菴), 우재(尤齋)이고 시호가 문정(文正)인 그는 조선 후기 동방의 대유학자로 우뚝 솟은 인물이다. 8세때 회덕동춘당에서 송준길(宋浚吉)과 함께 공부하였다. 뒤에 회덕의 소제동, 가양동, 성전(星田:진잠) 등지에서 살았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하여 척화(斥和) 및 재야(在野) 학자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그에게도 세자시강원 진선(世子

侍講院 進善). 사헌부 장령등의 관직으로 벼슬길에 나아갔다.

효종의 북벌의지와 부합하여 장차 북벌계획의 핵심 인물로 발탁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다음해 갑자점 일파가 청나라에 조선의 북벌동향을 밀고함으로써 조정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으며, 1653년에 충주목사에 이어 사헌부 집의, 동부승지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취임

하지 않았다. 1668년(현종 9년) 우의정에 임명되고 1673년(현종 14년) 좌의정에 제수되었다. 그의 사상은 정통 성리학을 고수하였으며, 당시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사회 신분문제에 있어서 양반의 우월성을 인정하였지만 그들의 특권은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양민에게만 지워졌던 군역(軍役)의 부담을 줄이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戶布制)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문집으로는 우암집(尤菴集)과 정조의 명으로 목판 125권 102책을 출간하고 송자대전이라 명명하였고 병선(秉璫), 병기(秉夔) 등에 의하여 송자습유 등이 간행되었다.

우암 송시열선생은 효종, 현종, 숙종의 스승으로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효종 대왕 묘정에도 위패가 배향되어 있다.



▲ 송시열선생 탄생기념 춘향제

상주 흥암서원 춘향제

지난 4월 29일(음 3월10일)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흥암서원에서 춘계제향 행사가 열렸다.

흥암서원은 동춘당 선조가 단독으로 배향된 독향 서원으로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보존된 전국 47곳의 서원 중 한 곳으로 동춘당 선조께서 상주 출신의 우복 정경세 선생의 사위가 됨으로 인하여 상주지역에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게 되었고 사후 후학들이 자신들의 스승을 위하여 서원을 설립하여 동춘당을 배향하였으며 후에 국가로부터 사액을 받게 되었다.

동춘당 선조의 영남지역 학문 활동은 호서지역과 영남지역의 학문교류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예학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17세기 영남과 호서의 예학이 종합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흥암서원에는 숙종대왕이 직접 쓴 어필 편액이 보존된 어필각이 있고 동춘당 문집 목판이 보관된 장판각이 보존되어 있다. 흥암서원이 현재는

경상북도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나 상주시와 서원관계자들의 노력으로 국가문화재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이번 춘향제향에는 동춘당 문정공 종중 도유사 및 동춘당 종손을 비롯한 종원 8명이 제향에 참여하였고 상주 지역 유림 다수가 참여하였으며 특히 남인계의 상주지역 주서원인 도남서원 원장(이상용)이 초헌관을 맡아 봉행함으로써 영남(남인)과 호서(서인)의 학문적 교류의 가교역할을 하였던 동춘당 선조의 유지가 제대로 계승됨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동춘당 문정공파 종중 도유사 송용순)



판서공종중 단합대회

2023년 6월 8일 판서공종중 3개파(연안공파, 감역공파, 제월당문회공파) 자손들은 판서공의 유훈과 업적을 봉송하고 종원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코자 일일 여행을 다녀왔다.

서울에서 출발한 대형버스가 충북 음성을 거쳐 대전 만남의 광장에서 판서공종중 공사원 송인한(감역공파)과 연안공파 송기선 공사원, 감역공파 송준영 공사원, 제월당 문회공파 송인무 공사원 등 33명의 종원이 참석하였다.

금년의 목적지는 대전으로 시원하게 뻗은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를 달리며 그동안 판서공세일사 및 외손봉사(판서공 장인이신 순흥안씨 경(敬)인(仁)의 세일사를 350여년을 모심)봉행을 위로하고 선대 세일사에 많은 종원들

의 참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어서 대천에 도착하여 예약된 식당에서 생선회와 싱싱한 해산물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1시간30분 소유되는 유람선에 탑승 선착장을 출발하여 → 월도 → 육도 → 추도 → 영목항 → 효자도 → 여자바위 →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유람선 관광을 마치고 보령해저터널 체험행사를 하였다.

이날 참석한 모든 종원들은 피곤함도 잊은 채 돌아

오는 버스안에서 미리 준비한 싱싱한 회를 안주로 소주잔을 나누며 짧은 여행 일정이 아쉽기만 하였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의 판서공종중 단합대회에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며 이날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 판서공종중 단합대회 후 기념촬영

동춘당 온고e지신(溫故而知新)

문화재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이 주최하고 동춘당문화컨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동춘당 온고e지신 프로그램이 동춘당 종택 일원에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펼쳐졌다.

온고이지신이란 옛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으로 스마트엔터링, 한복패션쇼, 조선밥상 식사와 전통술 빚기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 스마트엔터링 프로그램은 갓을 쓰고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옛사람이 된 기분을 내면서 동춘당 역사공원 한바퀴를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들어가며 퀴즈도 풀면서 산책한다.(동춘당 종택 → 호연재 고택 → 동춘당)

한복패션쇼(조선을 입다 : 동춘당 나빌레라)는 마음에 드는 한복을 골라서 차려입고 레드카펫이 깔린 런웨이를 걸으면서 연예인이나 모델이 된 듯 자신의 끼와 매력을 보여준다.

세시풍속 24절기 조선밥상 프로그램은 주최측에서 대나무로 만든 차반도 시락과 차를 준비한 것을 실제로 먹는 것인데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너도

나도 사진을 찍게 만든다. 정갈하고 소박한 밥상으로 식사를 한다.(팔찰밥, 오이냉국, 궁중떡잡채, 취나물, 열갈이 김치, 삼색전, 감자계란샐러드, 방울토마토, 포도, 간식꾸러미)

전통술 빚기(오백년의 가치 : 술익는 마을 동춘당)프로그램은 은진송씨 동

춘당가문의 가양주(家釀酒)인 국화주(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나호로 지정)를 직접 빚어보는 체험행사이다. 동춘당 송준길선생의 14대손인 송영진 기능보유자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참가자들도 밀가루에 물을 첨가해서 비벼주고 찹쌀 고두밥에 밀술을 부어준 다음 찹쌀밥알이 잘 떨어

지도록 비벼주고, 그 위에 가을에 따서 말려둔 국화를 넣고 뚜껑을 닫은 뒤 7일간 숙성하면 향긋한 국화주를 맛볼 수 있다. 내가 담근 술과 주취측이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동춘당 국화주를 한병을 받으면 행사는 끝난다. 아쉽게도 금년에는 6월 30일이 마지막 체험일이라 해마다 종택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호군공파 송하영 대종회에 마이크 앰프 증정



호군공파 송하영

호군공파 송하영님은 지난 류조비 세일사때 원활한 봉행을 위해 휴대가 편리하고 이동이 손쉬운 앰프와 마이크를 기증했다. 후암 송하영은 호군공파 파유사로서 그동안 종중 발전은 물론 대종회의 업무에 적극 협

조함은 물론 다방면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류조비세일사의 축문을 직접 쓰는 등 행사 후 참제한 종원들의 도기록 작성을 술선수범하여 맡아 줌으로서 종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송창공파 송구영 공사원
성균관 원로위원 추대



송창공파 공사원 송구영은 2023년 6월12일 성균관장으로 부터 34대 성균관 원로위원 추대장을 받았다. 송구영 공사원은 지방공무원을 정년퇴직하고 회덕향교 장의로 시작하여 전교까지 하고 송현서원 원장을 3회연임 하다가 32대 성균관 부관장을 거쳐 이번에 성균관 원로위원으로 추대 되었다 임기는 34대 최중수 성균관장과 같이 3년이다.

송월재공파 송동환
변호사 시험 합격



송월재공파 자손으로 시조 大宇原公 할아버지로부터 26세인 송동환 군은 부친 송인선씨와 모친 진주하씨 하인숙씨 사이에서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2020년도에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2023년도에 졸업하면서 최우등상을 받았다. 금년도 제1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대중회 인사>

파명	성명	날 짜	내 용
삼가공파	송인집(宋寅集)	2023.06.01.	任 총무유사

종보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중회에서는 종보를 통하여 종원 독자 여러분께 종중의 발전을 홍보하고 은송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종보의 발간을 위하여 종원들이 적극적으로 종보 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사 제보를 요청합니다. 보내 주신 원고는 편집위원 회의를 거쳐 게재하겠습니다.

- 다 음 -

1. 내용 :
- 1) 각 파종중의 회의, 행사, 재실이나 산소 정화 등

2) 학위취득이나 각종 시험 합격

3) 승진, 전보, 임관, 개업 등

4) 각종 미담 사례 등

5)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관련 사진 첨부.
2. 보낼 곳 :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61, 원일빌딩 6층 은진송씨대중회
팩스 042-633-0531 / 이메일 ejs0835@hanmail.net
3. 연락 처 : 전화 042-256-0835

연회비 납부 안내

격월로 발행하는 종보는 종원들께서 납부하신 연회비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뜻있는 종원께서는 연회비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계좌]

- 하나은행 : 609-233549-00205
- 농 협 : 351-1084-0817-03

기타안내

[지로 입금 시]

동명이인이 많은 관계로 주소 확인이 불가하오니 입금 시 독자번호와 이름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으로 입금 시]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현금 입금 시 대중회로 반드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대중회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명문가(名門家)의 조건(1회)

사우당효정공파 공사원 송진팔(宋鎭适)

종중 사무실의 서고(書庫)를 들어갈 때면 출입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들어간다. 그곳엔 먼 선대부터 근대 조상들까지의 족보(族譜), 문집(文集)과 선적(先蹟) 자료들이 빼곡하게 들어있다. 특히 묵향이 그윽한 그 분들의 필체를 접하면 조상님을 직접 대하는 느낌이 다. 수 십 년에서 수 백 년 전 선대의 개성 있는 붓글씨체를 보면 노쇠한 선대의 손끝을 보는 듯하다.

서고는 각 문중의 선조들을 만나 보는 공간으로, 오늘 나는 누구인가, 또 어떻게 살다가야 하는가를 자문하며 하루를 보내는 곳이다.

은진 송씨(恩津宋氏)는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學者) 집안이었다. 뛰어난 학자도 많았고, 후세에 전할 만한 훌륭한 글도 그 덕에 많이 있다. 나는 우리 조상들의 문집을 읽으며 소일(消日)하곤 하는데, 조고(祖考) 난곡 송병화(蘭谷 宋炳華, 1852~1915)의 문집을 자주 읽는다. 조부께서는 구한말 대전 동구 이사동에서 태어나 일생을 마친 분이다. 가학(家學)으로 기호학과(畿湖學派)의 학맥을 이은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유학자로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시었다.

책장에서 우연히 만난 「선적집요 先蹟輯要」란 책자에서 생전에 쓰신 조부의 문장을 보고 다시 감명을 받았다. 서문의 내용은 조부를 찾아온 먼 곳에 사는 친척에게 훈계하신 글이다. 같은 자손끼리, 문중 내 친인척간에 서로 단합하고 조화롭게 지낼 것을 당부하시며, 그 방법에 관하여 쓰신 글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시대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담겨 있어 인상적 이었는데, 오늘은 할아버지의 문집에 담긴 글을 한편 소개하려 한다.

『한 선비가 지위가 없어도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방법은, 바로 종족(宗族)[성씨가 같은 가문]을 돈독히 하는 것이다. 천하 종족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돈독히 지낸다면, 선(善)하지 않은 자(者)라도 종족으로 선치(善治)될 것이고,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선(善)한 일을 하며 지낼 것이다.

종족을 돈독(敦篤)하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먼저 족보(族譜)를 정리하여 그 일가(一家)를 연결한다. 둘째, 시조(始祖)의 분묘를 함께 배알하여 마음을 결속한다. 셋째, 친척(親戚) 간에 서로 예(禮)를 돈독히 하여 서로 친애하며, 조상의 은혜를 기린다.』

이 세 가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도 언급하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족보를 정리하는 법 : 정월(正月)의 길한 날에 일가가 모여 족보를 정리하며 12월(十二月)의 길한 날에 다시 모

여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고 선(善)한 일을 권면한다.

분묘(墳墓)를 배알하는 법 : 봄과 가을에 음주례(飲酒禮)를 행하여 가문의 법(法)과 규율(規律)을 밝힌다.

친척 간 친애하는 법 : 노인과 젊은이, 어린이와 약자 모두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어려운 일이나 장례(葬禮)가 있으면 서로 돕는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행한다면 지위가 없어도 서로 교화(教化)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천하의 풍속도 변화시킬 수 있으니, 이 도리(道理)를 알고 실천할 것을 당부하셨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세상에 그런 것을 따져 무엇 하느냐며, 모두 구(舊)시대의 고루한 격식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 족보니 분묘니 하는 것도 옛 문화이며, 핵가족 시대를 넘어 1인 가정이 대세가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친척은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집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대를 관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음을 느낀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하였다. 가족 친족이 있고, 나라와 세계가 구성되는 것이니, 일가(一家) 간에 화목한 것이 나라가 안정을 찾고 발전하는 초석인 것이다. 그러니 가족 간 우애가 있고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족보를 정리하는 것은 한 집안의 구성원임을 확실히 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다. 정월과 12월에 모여 가문 내에 태어나고 돌아가신 사람을 정리하며 소식을 전하니, 당시의 족보 정리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가문 내 애경사가 있으면 함께 나누니 여전히 좋은 일이다. 나는 은진 송씨(恩津宋氏)가 모여 사는 집성촌에서 나고 자랐다. 동네 사람은 전부 형님이고 삼촌이고 조카였다. 이런 가운데 족보 정리를 하여 나와외의 관계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서로의 유대감을 더욱 끈끈하게 한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일지라도 몇 대조(代祖) 할아버지가 같다는 생각이 들면 더욱 친근한 느낌이 들지 않겠는가?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은 없다. 나의 뿌리를 확실하게 알고 내가 어디에 위치하였는지 아는 것은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니 내 친척과 문중 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는 오직 족보(族譜)뿐이다. 내가 양반의 후예이고, 우리 조상님이 무얼 했는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고리를 이어주는 문서가 바로 족보이다. <다음호에 계속>

은송가의 할머니들 이야기

지평공(持平公：繼祀) 선조님의 배(配) 부귀를 갖추고 천수를 누린 공인(恭人) 순천김씨(順天金氏)

공인(恭人) 순천김씨(順天金氏)는 쌍청당의 큰아들 지평공(持平公：繼祀) 선조님의 배(配)이자, 류조비(柳祖妣)의 손자며느리이다.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 김종흥(金宗興)의 따님으로 1407년(태종 7)에 한양에서 태어났는데 절재(節齋) 김종서(金宗瑞) 장군은 바로 공인 김씨의 큰아버지가 되신다.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이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공인 김씨는 어려서부터 현숙한 자태에 덕망이 있었는데



▲ 지평공 배위 순천김씨 묘역과 묘비 (대전 동구 주산동)

집안에서 유일하게 여자아이로 태어났기에 부모에게는 물론 큰아버지 내외에게까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다. 자라서 동갑 나이인 지평공과 혼인을 한 뒤에는 한 결 같이 변치 않고 여칙(女則)¹⁾이라는 책에 따라 행동하였으므로 시부모와 시조모를 모시는 층층시하의 처지에서도 항상 공손한 낮과 몸가짐으로 조심성 있게 받들었다. ‘천성이 엄숙하면서도 인자하여 집안을 다스리는 데에도 법도를 지키며 악착스럽게 하지 않아도 수만금의 재산을 모았다’고 강훈(姜渾)²⁾이 지은 「공인김

씨묘표(恭人金氏墓表)」에 적혀 있다. 이처럼 공인 김씨가 엄숙하면서도 인자하게 살아간 것은 젊은 나이에 남편 지평공과 사별하고 혼자서 아들 형제를 기르면서 위로 시할머니와 시부모를 모시면서 가정을 관리해 나가기 위하여 몸소 침선방직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몸에 밴 근검절약으로 저축을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사는 어린 조카딸



을 걱정할 당대의 최고 권력자인 절재 김종서 장군의 배려 또한 간과(看過)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묘표에 보인 ‘악착스럽게 하지 않아도 수만금의 재산을 모았다’는 글에서 짐작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넉넉한 재산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공인 김씨는 결코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불교를 믿기보다는 조상을 모시는데 힘을 썼다. 그것은 다음 대목에서 알 수 있다. 어느 날 독실하게 불교를 믿는 사람

이 찾아와 공인 김씨에게 믿음을 권한 일이 있었다. 이 때 부인은 “나는 조상을 정성껏 섬기면서 우리 일가 중에서 외롭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으로 만족할 따름이지 달리 할 일이 전혀 없다.” 고 거절한 것으로 보아도 공인에게는 조상을 모시고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 도리라고 종부(宗婦)다운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인은 자만하지 않고 항상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가짐과 행동을 하였다. 더구나 친정 큰아버지 김종서 장군이 세조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음에 상실감이 누구보다도 컸겠고, 게다가 요행이 홀로 죽음을 면하고 고모댁인 자신의 집으로 피신을 온 친정 조카 행남(幸南)을 한동안 집에 숨겨 두면서 겪은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지만, 근심하는 빛을 조금도 밖에 내보이지 않은 여장부다운 면모를 보였다. 김종서 장군이 무참히 살해될 때 가족들마저 모두 살해되었다. 요행이 김종서 장군의 작은아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행남은 남쪽 송고모댁으로 몰래 찾아와 6개월 동안을 묵었다고 한다. 너무 오래 조카를 데리고 있으면 화가 미칠까 봐 반년을 데리고 있다가 무주에 사는 일가 집으로 행남을 보냈다고 하는데 무주에 사는 일가는 아마도 친

정 집안인 순천김씨 집안일 것으로 추측된다. 슬하에는 요년(遙年)과 순년(順年)의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 큰아들은 상주목사(尙州牧使)를 지냈고, 작은아들은 예조정랑(禮曹正郎)이라는 벼슬에 올랐으나 모두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큰아들 목사공은 2남 1녀를 두었고, 작은아들 정랑공은 3남 2녀를 두어서 손자 증손, 현손의 수만도 40여 명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모두 글 읽기를 좋아하고 뒤에 벼슬을 하였다. 이들 자손 중 특히 목사공의 사위는 숙헌공(肅憲公) 강구손(姜龜孫)으로 당대에 이름이 난 정승(政丞)이었고, 정랑공의 사위 문익공(文翼公) 정광필(鄭光弼) 또한 정승을 지냈으니 공인 김씨는 손자사위 둘을 정승으로 둔 셈이다. 1501년(연산군 7)에 공인 김씨는 95세의 천수(天壽)를 누리고 세상을 하직했다. 이렇듯 공인 김씨는 부(富)하고 귀(貴)하게 삶은 누렸고, 또한 어린 자손들이 많으니 하늘의 도리(天道)가 착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진정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고 보겠다.

〈『은진송씨선적사』, 『은진송씨세적록』, 『은진송씨보』, 『가문 전래 구전』〉

1) 여칙(女則) : 중국 당나라 문덕장손황후(文德長孫皇后)가 지은 책으로 부인의 선행을 모아 기록한 것으로 모두 10편이 있다.
2) 강훈(姜渾) : 인조, 연산군 때의 이름난 문장가이자 문신.

산야초 이야기(별집 꽃, 머위)

화단에 모란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수 십 년 전에도 그만한 키가 여전하다. 꽃송이가 커서인지 피면서 시드는 모습이다. 부귀(富貴)를 뜻하는 꽃이라는데 정말 탐스럽다. 공허한 집을 화사하게 해주는 목단(牡丹)이다. 커다란 푸른 잎에 둘러싸인 모습은 병풍에 있는 한 폭의 그림 같다. 이맘때면 형제들이 모여 두릅, 참죽순, 머위를 데쳐 삼겹살을 구워 찜도 먹었는데, 제 살기 바빠선지 요즘은 그것도 흐지부지다. 이제는 멀리 뿔뿔이 흩어져 빈집처럼 되어버린 처가(妻家)는 우렁이 깍지가 되었다.

텃밭을 나가보니 참죽나무 순이 제법 자랐다. 이번 주말은 저 순을 따서 장아찌를 꼭 담글 계획이다. 오갈피나뭇잎도 씹으로 먹을 만큼 알맞게 자랐다. 담장 밑에는 머윗대가 쑥 올라와 있다. 해마다 자라는 면적이 넓어지는 것 같다. 커다란 호두나무를 에워싸고 시위를 하고 있다. 넓은 잎이 우산처럼 펼쳐져 텃밭의 가장자리를 모두 덮고 있다. 씹스러운 맛이 일품

인 머윗잎은 입맛을 돋우는데도 제격인 나물이다. 머위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습기가 있는 곳에 잘 자라며 땅속줄기가 옆으로 뻗는다. 그 줄기 끝에서 잎이 나오는데 잎자루가 길다. 잎은 넓은 원형이며 가장자리에는 고르지 않은 톱니가 있다. 잎이 나오기 전에 꽃봉오리가 먼저 나오는데, 암꽃은 백색이며 수꽃은 약간 노란색을 띤다. 이 풀은 산채(山菜)로써 잎, 줄기, 꽃이삭을 식용한다. 봉두채(蜂斗菜), 관동초(款冬草)로도 불린다.

한방에서는 꽃이 피기 직전의 머위꽃봉오리를 채취하여 약재로 사용한다. 진해(鎭咳), 거담(祛痰), 혈압상승작용의 약리작용이 있는데, 해수(咳嗽), 천식(喘息), 인후종통(咽喉腫痛) 등에 효능이 있다. 폐(肺) 등 기관지 치료에 요긴하게 쓰이는 탁월한 약용식물이다. 민간요법으로는 이른 봄에 일찍 나오는 작고 부드러운 잎과 잎자루를 채취하여 더운 물에 살짝 데쳐서 양념하여 먹으면 강장식(強壯食)이 되

며, 식욕 촉진, 정력(精力)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생선 증독과 별레 물린 곳에 머위즙(汁)을 바르면 효과가 있다고 동의보감에서 전한다. 머위는 식탁에 봄의 생기(生氣)를 일찍 알리는 봄나물이다. 겨울의 모진 추위를 이기고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고 하여 관동화(款冬花)라고 불리는 이름을 가졌다. 꼭 닫힌 대문으로 볼 일이 없으면 누구도 들어설 리 없는 집. 텃밭에 흐드러진 머위는 저절로 잘도 크다. 물이나 거름을 제 때에 안 주어도 봄이면 어김없이 싹을 내밀고 뿌리를 이어 나간다. 머위가 어느새 텃밭을 거의 점령해 버렸다. 장모님 생전에 푸성귀라도 뜯어 먹으려면, 자식들이 집에 들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여 심어놓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편찮으셨던 인생 말년에 멍하니 텃밭을 지켜보던 눈길이 선하다.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들르지 못한다. 향시 마음 한 구석에 응어리진 답답한 느낌을 언제까지 갖고 살아야할까. 녹음(綠陰)이 우거진 산등

성이에 송화가루가 바람에 종횡무진이다. 무심하게 세월은 가고, 산 사람은 그럭저럭 살아간다. 행한 집에 머윗대라도 푸르게 깔린 텃밭이 그나마 반갑다.



밥상에 오른 풀 죽은 머위 잎이 맛갈스럽다. 들깻가루에 범벅된 걸죽한 머윗대가 고소하다. 이것이 우리 고유의 독특한 머위나물 맛이다. 약용식물이며 봄나물로 철따라 밥상에 오르던 머위가 이제는 특별한 음식이 되어버린 것 같다.

〈사우당효정공파 종중 공사원 鎭适〉
〈www.youtube.com/산야초오솔길〉

은진송씨 대종회 홈페이지 구축을 마친 소회(所懷)

- 은진송씨 문헌의 아카이빙(archiving : 자료전산화) -

동춘당 문정공 11대손 이당 송성빈

2022년(壬寅) 1월 말 종중 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은진송씨 대종회 홈페이지』가 회장님의 의지로 구축되었다.

2020년 7월부터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자료수집을 준비하여 1년 6개월 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종원은 물론 연구자와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아송(我宋)의 진면목(眞面目)을 보여주고자 온 힘을 기울여, 작업을 기획하고 자료수집과 원고를 작성하여 미흡하나마 홈페이지 실무를 담당한 필자로서는 지난 1년 반의 여정이 감회가 새롭다.



▲ 홈페이지 대문

우리 문중은 기록의 문중

우리 문중은 기록의 문중으로 유명하다. 우리 선조들의 노력으로 타 문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문집을 생산하고, 가승(家乘)의 기록을 남겼다. 그 결과 아날로그 analogue 시대에 기록을 선도해가는 최고의 가문으로 문중 기록문화의 선도에 서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은진송씨의 기록문화가 어떤 변화를 해야 하는가? 고답적(高踏的)인 다른 문중의 홈페이지를 본받을 수는 없다. 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변화의 시기에 다시 문중 문화를 선도해가는 역할을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자.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종중의 역사 문화를 정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새롭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물론, 일반인들이나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올리자. 기록자료들을 단순히 보존(保存 : conservation)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지향하는 보전(保全 : preservation)의 방법으로 새로운 아카이빙(archiving : 자료전산화), 즉 기록 문화유산을 안정적인 방법으로 남길 수 있는 현대적인 방법으로 전환해 미래의 새로운 문중 기록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은진송씨 대종회

홈페이지』를 만들자는 구상으로 추진하였다.

필자는 이후 일주일에 삼사일은 대종중에 들러 회장님과 원고 쓴 것을 보고하고 회장님의 지시에 수정하면서 분류별로 원고를 작성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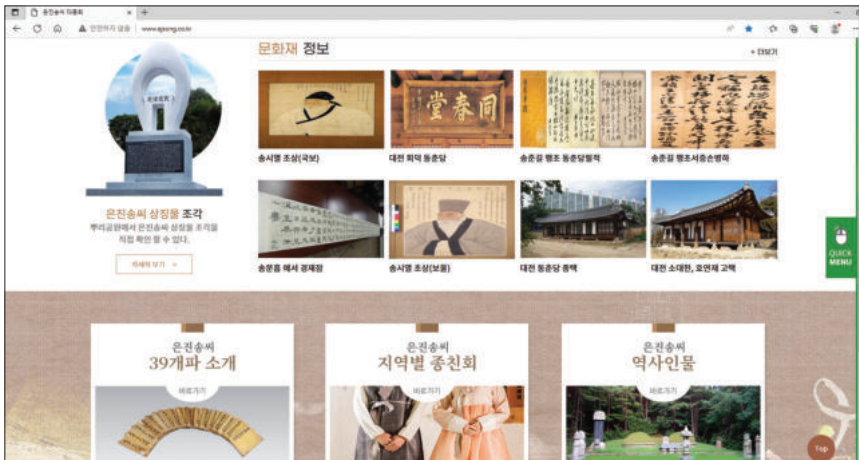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평소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에 다녔다. 그러나 다니던 일반병원에서 검진 결과 문제가 있어 큰 병원으로 가라는 의사의 조언을 받았다. 세종 충남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전립선암이 심하다는 처방을 받았다. 홈페이지

다. 내가 컴퓨터 전문가인데 구축 전 문화사도 아주 기술력이 훌륭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디테일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평산신씨 천년사』를 보내면서 조언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또한 많은 연구자가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서 자주 참고하여 보겠다. 고 칭찬과 격려를 하였다.

필자는 지난 2022년 8월 25일(목) 논산시 노성 병사리에 있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열린 「충청 국학 연구의 현황과 새 지평」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충청 국학 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여러 주제 중에 필자에게 와닿는 주제가 성균관대 유인태 교수가 발표한 「국학, 아카이브, 데이터 액티비즘」이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문헌이 데이터를 매개로한 참여와 실천으로서의 인문 학술로서 한학이나 보학의 소장 자료를 한문 자료(materials)와 사료(historical record)를 정리하고 자료화해서 일반에게 공개하여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데이터 중심의 사회로의 대전환, 즉 보존에서 보전으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역에서는 공주학 아카이브로 인해 공주시가 현재 전국에서 지역학 아카이브 체제를 갖춘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라는 영광의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이어 필자가 『은진송씨 대종회 홈페이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질문하기를 “우리 홈페이지도 문중으로서 모든 은진송씨 모든 자료를 원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올려놓아 일반이나 연구자들도 정보를 알 수 있게 해 놓았다. 문중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했다고 보는데 이러한 시도도 은진송씨 보학 아카이브의 시도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유인태 교수님은 답에 “이러한 시도가 바로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 가는 선도적인 문중 보학의 시도라고 보된다. 새로운 문중 자료를 계속 올려

주면 도움이 되겠다. 좀 더 발전시키려면 ‘한국유교 문화진흥원’이나 ‘대전 역사박물관’ 등 관계기관과 계약체결을 하면 관련 학자들의 논문이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문중에 건의하면 더 완벽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필자는 문중 성격상 가능할까 고민된다고 답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유병덕 박사는 홈페이지를 본 소감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이제까지 봐왔던 일반 문중 홈페이지와 격이 다르다. 문중 홈페이지로서는 획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구축하느라 고생 많이 한 흔적이 엿보이고 타 문중의 홈페이지와는 180도 다른 상상 이상의 편집을 했다. 전체적으로 훌륭하다. 욕심을 부리자면 자료들에 원문과 원자료들까지 같이 올렸으면 좋겠다. 홈페이지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진송씨에 대하여 정확히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수시로 교정도 해야 한다. 은진송씨가 아닌 연구자나 일반인들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데 링크가 너무 많이 걸려있다. 연구자로서 볼 때 가능하면 링크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파시조 급 위의 인물들에 대한 묘갈문 등 원문 제공은 잘 되었다. 자료의 원전 소개 등 원문 서비스 등을 보완하면 그야말로 아카이브로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홈페이지 완성

이로써 1년 6개월의 우여곡절의 여정을 거치면서 『은진송씨 대종회 홈페이지』가 미흡하나마 완성되었다. 기간 중 필자는 전립선암 수술로 1개월간의 입원과 2021년 12월 말의 암수술과 독감 백신주사 등의 후유증으로 심하게 앓아 3박 4일간 입원하고 한 달 동안 고생하였다. 이 와중(渦中)에 병행하여 『은진송씨 대종회 사적』과 『은진송씨 가문의 할머니들 이야기』를 썼다. 그야말로 신들린 듯이 혼을 뺀 듯이 어떻게 원고를 썼는지 알 수 없는데, 조상님들이 도우셨는지 무사히 일이 마무리된 것 같다.

『은진송씨 대종회 홈페이지』를 본 일반인들의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

평산신씨 대종회 사무국장 신현기씨는 “우리 홈페이지 내용이 아주 고품격이면서 신선하고 내용이 훌륭하

『대종회 홈페이지』는 송태영 회장님과 필자가 의도한 대로 문중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문중 기록문화를 이끌어가는 변화된 모습을 선보임으로써, 문중 홈페이지의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 종원들은 아송(我宋) 홈페이지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느끼기를 바라며, 관심이 있는 연구자나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서비스해주어, 선조들의 업적이 세상에 더욱 널리 현창되리라 믿는다. 종원들은 수시로 들어가 확인하고, 새로 발굴된 정보는 문중에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은진송씨 선조가 모셔진 서원 사우 (12회)

송창공파 공사원 송 구 영

동춘당 송준길이 모셔진 서원

이번 호부터는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이 모셔진 서원 사우를 서원이 설립된 시대 순서대로 게재한다. 송준길은 전국에 있는 9개의 서원 사우에 모셔져 있어 서원 사우마다 인물 약전을 쓰면 똑같은 내용이 중복됨으로 설립 연대순을 벗어나 독향(獨享)으로 모셔진 흥암서원(興巖書院)을 먼저 하고 자세한 인물 약전을 여기에 쓴 후 다음 호부터는 송준길의 인물 약전은 간단하게 쓸 예정이다.

동춘당 송준길이 모셔진 서원은 1)충현서원(忠賢書院) 1581년 창건 충남 공주, 2)돈암서원(遯庵書院) 1634년 창건 충남 논산, 3)봉암서원(鳳岩書院) 1651년 창건 세종자치시, 4)송현서원(崇賢書院) 1563년 창건 대전 유성, 5)금담서원(黔潭書院) 1695년 창건 충북 청원, 6)흥암서원(興巖書院) 1702년 창건 경북 상주, 7)성천서원(星川書院) 1703년 창건 경남 거창, 8)용강서원(龍江書院) 1716년 창건 충남 금산, 9)표충사(表忠祠) (연대 미상) 충북 이원, 이와 같이 전국 9개의 서원에 모셔져 있다.

X. 흥암서원(興巖書院)

1. 현황

- 소 재 지 : 경상북도 상주시 연원리 769
- 문화재지정 : 경상북도 기념물 제61호 (1985.10.1.지정)
- 배향인물 : 송준길(宋浚吉) 독향
- 창건년대 : 1702년 (숙종28)
- 사액년도 : 1716년 (숙종42)
- 향 사 일 : 음력 3월 9월 상정일

2. 연혁

송준길의 위패를 모시고 그의 덕을 기리기 위하여 후학들을 교화하던 사학 기관이다.

1702년(숙종28)에 창건하였고 1716년(숙종42)에 흥암서원으로 어필(御筆) 사액(賜額)이 내려지고 좌부승지 유송(兪崇)을 보내어 치제하고 이때 어필비각(御筆碑閣) 및 하마비를 건립하였다.

1809년(순조9)에 현재 위치로 이건하여 서원 휘철령에도 폐쇄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하나다.



▲ 진수당(강당)



3. 인물 약전

송준길宋浚吉 (1606-1672)

조선 후기의 문신 학자로 자는 명보(明甫) 호는 동춘당(同春堂) 시호는 문정(文正).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1606년(선조39) 12월 29일 서울 정동 외가에서 태어났다. 동춘당이 태어난 집에서 사계 김장생, 신독재 김집이 태어난 곳으로 세분이 모두 문묘에 배향되어 사람들이 삼현대(三賢臺)라고 불렀다. 아버지는 영천군수 송이창(宋爾昌)이고 어머니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使) 김은휘(金恩輝)의 딸 광산 김씨이다.

1614년 송갑조가 아들 시열(時烈)을 송이창에게 보내와 같이 배웠다.

1620년 2월에 관례를 할 때 김장생이 관을 씌워 주고 김집이 찬을 이시직이 빈을 하였다.

어려서부터 이이(李珥)를 사숙 하였고 1621년에 모친상을 당했다.

1623년 18세 때 김장생의 문하생이 되었고 10월에 우복 정경세의 딸 진주 정씨와 결혼 하였다.

1624년 (인조2) 8월 진사회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 초시에 합격하였다. 1625년 별시에 응시하여 답안이 최종심사 단계까지 뽑혔으나 시험관으로 참여하였던 장인 정경세가 글씨를 알아보고 이 사람은 꼭 이때가 아니라도 될 수 있다고 답안을 제외하였다. 1627년 아버지 송이창이 별세하였고 다음 해 부친의 묘갈을 썼다.

1630년 사마시에 제수 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1633년 동몽교관에 제수되어 나갔다가 정경세의 사망을 이유로 사퇴하고 귀향하였다.

1636년 12월에 병자호란이 나고 1637년 1월에 경남 함양군 안의면 노계촌에 우거하였다가 2월에 거창 영승촌으로 이거 하였다.

1638년 1월에 사한리로 돌아 왔다가 1639년 제생과 더불어 비래암에 모여 강학하였다. 1649년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하자 산림(山林)들이 대거 중용되었다. 산당(山黨)의 영수인 김집(金集)이 이조판서로 기용되면서 송시열과 함께 발탁되어 부사직(副使直) 진선(進善) 사헌부 장령을 거쳐 사헌부 집의에 올랐고 통정대부로 품계가 올랐다. 이 해에 인조 말부터 권력을 장악한 김자점(金自點), 원두표(元斗杓)

등 반정공신 일파를 탄핵하여 몰락시켰으나 김자점이 효종의 반청 정책을 청나라에 밀고하여 그도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 후 집의 이조 참의 겸 찬선 등으로 여러 번 임명 되었으나 계속 사퇴하였다.

1658년(효종9) 사헌부 대사헌 이조 참판 겸 성균관 좌주를 거쳐 1659년에는 병조판서 지중추원사 우참찬으로 송시열과 함께 국정에 참여하면서 북벌 계획에 깊이 참여하였으나 효종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국가의 북벌 계획은 무산되었고, 현종이 즉위하자 자의대비(慈懿大妃) 복상문제로 예송이 일어났는데 송시열이 기년제를 주장할 때 그를 지지하여 남인의 윤휴(尹鑄), 허목(許穆), 윤선도(尹善道) 등의 3년 설과 논란을 거듭한 끝에 기년제를 관철시켰다. 이해 6월에는 이조판서가 되었다.

1660년 3월에 우참찬 6월에 대사헌 등에 여러 차례 임명 되었으나 기년제의 잘못을 탄하는 남인들의 거듭되는 상소로 계속 사퇴하였다.

1665년 (현종6)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6월 원자의 보양(輔養)에 대한 건의를 하여 첫 번째 보양관이 되었으나 이 역시 곧 사퇴하였다.

1666년 12월에 찬선 1667년 6월에는 대사헌에 제수되었고 1668년 8월에는 이조판서에 제수 되었고 1669년 1월에 세자 관례를 청하고 5월에 상소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1672년(현종13) 11월에 병환이 위중하여 송시열이 화양으로부터 와서 문병하고 12월 2일 진시에 동춘당에서 67세로 별세하였다.

1673년 1월에 임금이 명하여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 경연 홍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兼 領經筵 弘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世子師)를 추증하였다. 3월에 연기 죽안리에 복지(卜地)할 때 송시열과 이유태, 方伯 南二星이 회장하였고 팔도 유생(八道儒生) 등 모인 자가 1,000여명이었다.

1675년(숙종1) 11월에 허적(許積), 윤휴(尹鑄), 허목(許穆) 등의 공격을 받아 관직을 삭탈 당하였다가 1680년(숙종6) 5월에 임금이 명하여 관작을 회복하였다. 이때 허적의 일자(藥子) 견(堅)이 아비의 세력을 의뢰하여 모반을 꾀하다 발각되어 부자가 죄로 죽으니, 임금이 비로소 예론은 가탁(假託)

한 것임을 깨닫고 예량을 보내어 묘에 사제(賜祭) 하였고, 민정중이 장곡강 고사(故事)에 의하여 묘에 사제하기를 청하니 원근사자(遠近士子)가 천여 명이 모였다.

1681년(숙종7) 6월에 도덕박문왈 문(道德博聞曰 文) 이정복지왈 정(以正服之曰 正), 즉 도덕을 널리 들음을 가로대 문이고, 正으로 다스림을 가로대 정, 문정이라는 시호를 사시(賜諡) 하였다.

1682년(숙종 8) 교서관에 명하여 문집을 간행토록 하였다. 범(凡) 24편이며 판각은 금담서원에 있다 하였다. 송시열 역시 제문을 가지고 와서 제(祭)하였다. 1756년(영조26) 2월 15일에 문묘에 종향하고 부조를 특명하였다.



▲ 흥암사(사당)



▲ 어필각

송 준 길 은 1681년 송현서원, 1685년 봉암서원, 1699년 돈암서원에 추배되고, 1695년 금담서원, 1702년 흥암서원, 1703년 성천서원, 1708년 표충사에 제향되었고 저서로는 어록해(語錄解) 동춘당집(同春堂集)이 있다. 글씨로는 부산의 충열사

비문, 남양의 윤재 순절비문, 돈암서원 묘정비, 송현서원 묘정비, 박팽년 유허비 등 다수가 있고 유적은 동춘당과 동춘당 고택이 있다. 묘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원정동에 있다.

4. 건축물 및 비

경내 건축물로는 강당인 전면 5칸 측면 3칸의 진수당(進修堂)이 있고, 안에는 1705년 예조좌랑 오수경이 지은 사제문과 절목 기문 등 많은 현판이 걸려 있다. 그리고 금담서원에 있던 1682년 왕명에 따라 간행된 동춘당문집 판각이 이곳으로 옮겨와 보관되어 있다. 강당 뒤에는 의인재(依仁齋)와 진의재(進義齋)가 있고 내삼문을 들어가면 사당인 흥암사(興巖祠)가 있다.

담장 밖 어필각(御筆閣) 안에는 숙종이 지어준 흥암사 서원이라는 비가 있다. 그리고 흥암서원 비에는 앞부분에 영조의 비망기가 뒷부분에는 권상하가 쓴 글이 있다.

5. 기타

흥암서원에는 심원록 청금록 권장계수지부 등 14건의 고문서와 15개의 현판이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종중을 아껴주시는 깊은 뜻에 감사드립니다. *

성금 및 연회비 납부자 명단 (2023.4.22~6.20)

◆류조비 세일사 성금

추파공파 천곡종중	300,000
송창공파 상서종중	100,000
사)장사랑공파 양오당종중	100,000
서울 성북종친회	100,000
송영훈 대전 유성구 원내동	100,000
송승섭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0,000
송중현 대전 서구 관저북로	100,000
송규식 대전 유성구 왕가봉로	100,000
송인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50,000

◆대중회 장학성금

송석근 대중회장	200,000
----------	---------

◆대중회 발전성금

송창공파 상서종중	200,000
송영완 경북 상주시 상산로	80,000

◆고액 연회비 납부자

송윤택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0,000
송희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0,000
송종빈 서울 강남구 선릉로	100,000
송호인 대구 서구 평리동	100,000
송인원 대전 중구 목동로	100,000
송길현 대전 유성구 지족동	100,000
송일호 대전 서구 관저동로	100,000
송재걸 경북 김천시 시청4길	100,000
송호덕 경남 합천군 대병면	100,000
송석원 5월 18일 농협	100,000

◆종중 및 종친회 연회비

•정랑공종중	300,000
--------	---------

•사직공종중 대전 동구 화남로	25,000
------------------	--------

•감역공파오정공종중	500,000
------------	---------

송좌영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송문영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송근영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송희영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송한영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송인성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송인호 서울 중랑구 면목로	
송인선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보영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송소영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송인구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송대영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송철영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송인석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송인혁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송일영 서울 광진구 면목로	
송인국 경기 오산시 오산로	
송원영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송낙영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송인설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송인보 서울 광진구 자양로	
송준영 경기 하남시 덕풍북로	
송인창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송해영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송인덕	
송인복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송원섭 서울 은평구 죽천로	
송현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송인승 경기 구리시 갈매중앙로	
송명섭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송장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송호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송인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송인광 경기 의왕시 내손로	
송정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송인상	
송인광 서울 광진구 면목로	
송인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송민성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송경섭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송인각	
송인빈 서울 관악구 신사로	
송원목 서울 용산구 이촌로	
송정훈	
송준섭	
송인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송화섭	
송인방 경기 구리시 갈매중앙로	
송민섭	
송충섭	
송인하	

•송창공파여직공종중	100,000
------------	---------

송창공파여직공종중 대전 중구 대흥로	
송하섭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송치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송호영 대전 대덕구 덕암로	
송성영 대전 서구 관저북로	

•사)장사랑공파 재부종친회	200,000
----------------	---------

송옥수 부산 서구 초창로	
송선남 부산 서구 해돋이로	
송병철 부산 사하구 하신변영로	
송병선 부산 사하구 장평로	
송병한 부산 북구 백양대로	
송병곤 부산 서구 꽃마울로	
송병옥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송두성 부산 금정구 장전로	
송성호 경남 양산시 물금읍	
송병훈 부산 금정구 금정로	

•경북 칠곡종친회	250,000
-----------	---------

송봉현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송철영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구상길	
송광호 경북 칠곡군 약목로	
송대영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송태호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개인 연회비 납부자

서울특별시

송제빈 서울 서초구 방배로	50,000
송조현 서울 관악구 봉천로	30,000
송영환 서울 노원구 중계동	30,000
송재선 서울 성북구 길음로	30,000
송석충 서울 중랑구 면목로	30,000
송치웅 서울 구로구 개봉로	20,000
송원준 서울 구로구 경인로	20,000
송달호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20,000
송재각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20,000

대구광역시

송우영 대구 달서구 비슬로	20,000
송창석 대구 달서구 상인동	20,000
송철운 대구 달성군 가창면	20,000
송규호 대구 동구 율하동로	20,000
송재고 대구 북구 구암동	20,000
송태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000

인천광역시

송명섭 인천 동구 제물량로	20,000
----------------	--------

대전광역시

송재성 대전 동구 흥룡로	50,000
송용재 대전 서구 원도안로	50,000
송석구 대전 서구 평촌동로	50,000
송희권 대전 중구 보문산로	50,000
송길순 대전 대덕구 비래서로	30,000
송범기 대전 대덕구 송촌북로	30,000
송치안 대전 중구 서문로	30,000
송지수 대전 서구 관저북로	25,000
송인길 대전 대덕구 덕암로	20,000
송수영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00
송영대 대전 동구 동구청로	20,000
송인환 대전 동구 동구청로	20,000
송성영 대전 서구 관저북로	20,000
송승섭 대전 서구 둔산중로	20,000
송승용 대전 서구 배재로	20,000
송일영 대전 서구 용문로	20,000
송병조 대전 서구 중반길	20,000
송희석 대전 유성구 은구비로	20,000
송병효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20,000
송만섭 대전 중구 대중로	20,000

울산광역시

송문태 울산 남구 중앙로	20,000
송영달 울산 울주군 범서읍	20,000

세종특별자치시

송석련 세종 조치원읍 도장말길	30,000
------------------	--------

강원도

송태섭 강원 원주시 부론면	30,000
송영삼 강원 강릉시 한밭골길	20,000
송재영 강원 원주시 이화5길	20,000

경기도

송재홍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50,000
송근호 경기 파주시 한빛로	50,000

미 상 경기 양주시(5월 11일 농협)	20,000
송래영 경기 용인시 수지구	20,000
송치용 경기 평택시 송탄로	20,000

충청북도

송갑준 충북 옥천군 청산면	50,000
송인훈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50,000
송구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0,000
송시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30,000
송석호 충북 영동군 황간면	20,000
송지용 충북 청주시 서원구 예제로	20,000
송인국 충북 충주시 주덕읍	20,000

충청남도

송영춘 충남 부여군 석성면	50,000
송영재 충남 계룡시 서금암길	30,000
송기환 충남 금산군 금산읍	30,000
송석호 충남 청양군 장평면	30,000
송석무 충남 아산시 염치읍	20,000
송영진 충남 아산시 음봉면	20,000
송정현 충남 청양군 청남면	20,000

경상북도

송광일 경북 김천시 대덕면	30,000
송재순 경북 경산시 경안로	20,000
송민호 경북 구미시 송정동	20,000
송영완 경북 상주시 상산로	20,000

경상남도

송순영 경남 합천군 대병면	50,000
송민호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30,000
송선비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30,000
송관영 경남 김해시 진영읍	20,000
송갑영 경남 김해시 한림읍	20,000
송영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20,000

전라북도

송웅빈 전북 익산시 왕궁면	50,000
송문헌 전북 무주군 적상면	20,000
송재근 전북 무주군 부남면	50,000

제주특별자치도

송중보 제주 제주시 남광북길	20,000
-----------------	--------

주소 및 성명 미상

송완수 5월 18일 농협	20,000
박삼례 5월 22일 지로/경기 오산시	20,000
송영태 5월 23일 하나은행	30,000
송인광 5월 31일 하나은행	20,000
송재경 6월 7일 하나은행	20,000
송정용 6월 9일 농협	20,000

= 恩宋의 文化財 (19회) =

51. 영동 송시열 유허비

-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46호
- 분 류 : 기록유산/서각류/금석각류/비
- 수량/면적 : 1기
- 지정일 : 1977. 12. 07.
- 시 대 : 1875년(고종 12)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원촌리 111
- 관리자 : 은진송씨종중



▲ 영동 송시열 유허비 전경

유허비란 한 인물의 행적을 기리고, 그의 옛 자취를 밝혀 후세에 알리고자 세워두는 비로, 이 비는 조선 후기의 문신인 송시열 선생을 기리고 있다.우암 송시열(1607~1689) 선생은 조선의 대 유학자로, 그의 유학 사상은 이 울곡의 학통을 계승하여 기호학파의



▲ 우암송선생 유허비



▲ 우암 송선생 유허비각

주류를 이루었다. 조선 인조 대부터 숙종 대에 이르는 4대에 걸친 노론의 대표로서 정계에서 크게 활약하였으며 뛰어난 학식으로 많은 학자를 길러내었다. 선생이 이곳에 잠시 은거하여 초당을 짓고 강학하였던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이 비는 받침돌 위로 비 몸을 세우고 머릿돌을 올린 모습으로, 비 몸 앞면에 ‘우암송선생유허비’라 새겨 놓았다. 조선 고종 12년(1875) 선생의 후손과 유림들이 비를 세웠다.

52. 영동 소석 고택

-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132호
- 분 류 :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
- 수량/면적 : 7필지/3,605㎡
- 지정일 : 1984. 01. 14.
- 시 대 : 1885년(고종 22)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로6길 26 (초강리)
- 관리자 : 은진송씨종중



▲ 안채

고종 22년(1885)에 지은 집이다. 넓은 들 위에 자리 잡은 집으로 안채와 사랑채·행랑채·광채 등이 있었으나, 행랑채와 광채는 1920년대에 철거되었다. 지금은 안채와 사랑채만이 멀찌감치 떨어져 남아있고 넓은 들 위에 자리 잡아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을 지닌다.

집의 앞쪽 약간 경사진 터전에 ‘ㄷ’자형의 사랑채가 위치하는데 뒤편이 높고 앞쪽이 낮은 상태다. 사랑채는 중앙의 사랑방과 사랑 대청을 중심으로 왼쪽 꺾여진 부분은 뒷방·사랑부엌·앞방이 위치하고, 오른쪽으로는 골방·건넌방·누마루가 위치한다.

누마루는 사방을 개방했는데 서쪽

으로만 간단하게 난간을 시설하였다. 안채는 ‘一’자형 평면으로 왼쪽부터 부엌·안방·대청·건넌방이 배열되었다. 안방의 앞에는 툇마루를 설치하여 대청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부엌의 앞마당에는 장독대가 있다.

조사 당시에 이미 많이 낡고 퇴락해 있었으나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지정·보존되고 있다.

지정 당시 명칭은 ‘영동송재문가옥



▲ 곳간채

(永同宋在文家屋)’이었으나, 가옥을 지은 송병필의 호 ‘소석(少石)’을 따라 ‘영동 소석 고택’으로 지정명칭을 변경(2007.1.29.)하였다. 송병필은 우암문정공파로 시조로부터 23세손이다.



▲ 사랑채

53. 영동 규당 고택

-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140호
- 분 류 :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
- 수량/면적 : 3필지/2,588㎡
- 지정일 : 1984. 01. 14.
- 시 대 : 1885년(고종 22)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금동로4길 9-9 (계산리)
- 관리자 : 은진송씨종중

19세기 후기에 건축된 집으로 상당히 넓은 터전을 차지한다. 집 뒤쪽 길가에 서서 바라보면 맛담을 쌓은 길이가 꽤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ㄱ’자형 안채와 광채가 널찍이 둘러앉아 전체적으로는 튼 ‘ㅁ’자 모양을 이룬다. 그러나 이것은 안살림에 해당하는 부분일 뿐, 바깥살림에 해당하는 외부공간은 많이 변형되어서 그 전체적인 원형은 알 수 없다.

안채는 큰 규모의 당당한 건물로 남도 방식에 따른 안채에 사랑 공간을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부엌·안방·대청·건넌방이 일직선으로 놓이고 꺾어져서 작은방·마루방·아래 사랑방·윗 사랑방으로 구성되었다.

안방부터 작은방까지는 앞·뒤 모두 툇마루로 연결하였다. 사랑 공간 또한 툇마루를 포함하고 있는 마루방을 통해 안채와 연결이 되고 있다. 광채는 부엌 왼쪽에 뒤편을 둘러싸



▲ 안채 및 사랑채

는 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꽤 고전적인 맛을 풍기는 건물이지만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관리가 필요하다.

안채 건넌방의 오른쪽에 마련

된 뒷간은 작은 초가 사모 지붕으로 만들었는데 모양이 아름다워 특히 인상적이다.

넓은 터에 더 많은 집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국전쟁 때 피해를 입어서 지금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지정 당시 명칭은 ‘영동 송재회가옥(永同宋在徽家屋)’이었으나, 가옥을 지은 송복현의 호 ‘규당(圭堂)’을 따라 ‘영동 규당 고택’으로 지정명칭을 변경(2007. 1. 29)하였다. 송복현은 우암문정공파로 시조로부터 24세손이다.



▲ 별채